

【비평논문】

사회생태사적 관점에서 본 근대 만주*

— 『「만주」의 성립 - 삼림의 소진과 근대 공간의 형성』 -

정 안 기**

1.

이 책은 목적은 사회생태사적 관점에서 ‘근대 만주사회의 형성 과정과 그 특성을 지역 생태계와 관련’해서 검토하는 한편, G.W.스키너(Skinner, G. William)가 제시한 시장모델의 만주에서의 적용 가능성 검증 그리고 石田興評의 만주 식민지 경제사 연구의 학문적 계승이다. 이 책은 7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총 4부 16장, 556쪽으로 근래에 보기 드문 대작이다. 각 장은 근대 만주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근대 만주의 경제·사회 변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먼저, 深尾가 집필한 서장 ‘바이코프에게 받치는 글’은 근대 만주의 풍요로운 산림과 자연이 급격한 훼손에 대해 평생에 걸쳐 안타까움을 토로했던 니콜라이 바이코프¹⁾

* 安富 步·深尾葉子 편, 名古屋大學出版會, 2010, 556쪽.

이 책의 편저자 安富 步 교수는 1963년 大阪府 출신으로 京都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에서 만주국 금융사를 전공하였고, 현재는 東京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安富步 교수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1997, 『「滿洲國」의 金融』, 創文社 등이 있다.) 이 책은 安富교수가 10여년에 걸쳐 신예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수행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성과물이다. 安富교수는 일본 학계의 식민지 경제사 학자로 저명한 京都대학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山本有造 교수의 제자이기도 하다.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1) 니콜라이 바이코프는 1872년 우크라이나 키에프 출신으로 1902년 개통 직전의 東清철도 동부선 경비대 장교로 임명되었다. 당시 바이코프는 하얼빈으로부터 綏芬河에 이르는 생태조사와 개인적인 수렵 활동 그리고 동식물의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삼림의 바다에 살다』, 『위대한 왕』, 『웅성거리는 밀립』 등 다수의 저작을 남겼다.

의 만주관련 여러 작품을 소개하는 한편, 이 책의 목적이 바로 만주의 산림과 자연이 언제 어떻게 파괴·훼손되었는가를 사회생태사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즉, 동아시아 최대의 원시림과 생태계를 자랑했던 만주를 대상으로 20세기 최대의 환경파괴사를 복원·해명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과 펼친은 다음과 같다

서장 바이코프에게 받치는 글(深尾葉子)

제 I 부 밀림을 파괴하는 철도

- 제1장 호랑이의 상실(永井りさ)
- 제2장 철도·사람·集落(兼橋正人, 安富 步)
- 제3장 凍土를 달리는 마차(永井りさ, 安富 步)
- 제4장 타르바간(tarbagan)과 페스트의 유행(原山 煌)

제 II 부 모든 길은 縣城으로

- 제5장 縣城경제(安富 步)
- 제6장 縣流通券(安富 步)
- 제7장 廟에 모여드는 神과 사람들(安富 步·深尾葉子)

제 III 부 새로운 권력구조의 창출

- 제8장 국제상품, 만주의 大豆(安富 步)
- 제9장 營口(松重充浩)
- 제10장 奉天(上田貴子)

제 IV 부 비교의 시점

- 제11장 山東의 小農경제(深尾葉子)
- 제12장 스키너의 定期市論 재검토(安富 步)
- 제13장 중국 농촌사회론의 재검토(安富 步·深尾葉子)

종장 삼림의 소진과 근대 공간의 형성(安富 步)

2.

이 책의 구성은 서장과 종장을 제외하면, 본론은 총 4부 13장이다. 각 장의 논지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I 부 「밀립을 파괴하는 철도」의 제1장 ‘호랑이의 상실(永井)」은 만주에서 급격한 철도와 도시 건설의 와중에서 당시 일본, 러시아, 중국이 실시한 만주지역의 삼림조사와 벌목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고 있다. 제2장 ‘철도·사람·集落(兼橋正人, 安富 歩)’은 만주에서 각국의 철도망 건설 과정과 이민자 유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인구 분포의 공간적 특성,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성장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만주의 사회경제적 특질로서 縣省경제의 성립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3장, ‘凍土를 달리는 마차(永井)」, 安富 歩)’는 <그림 1>과 같이 백두산의 삼림과 몽고 초원으로부터 마차의 材木과 말의 수급시스템이 형성되면서 근대 만주에서 철도와 연계한 대규모 마차운송 시스템이 성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마차운송 시스템은 이후 만주경제의 발전, 철도역과 현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망의 확대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제4장, ‘타르바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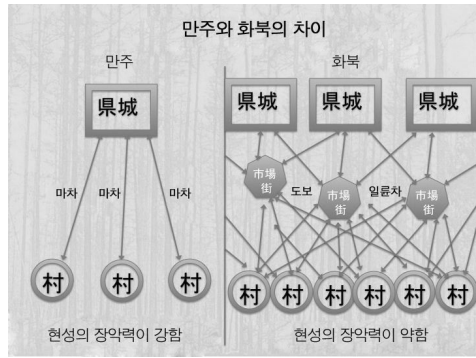
- 청조의 황실재산이 붕괴되어, 말과 삼림이 일반에게 개방되기 시작함.
- 철도 수송으로 무거운 馬車材(광엽수)를 수송할 수 있게 됨.
- 말과 목재 등이 철도로 연결되면서 마차가 일반화 됨.
- 철도 수송과 마차 수송과의 상호보완 관계가 성립 됨.

간(tarbagan)과 페스트의 유행(原山 燿)’은 만주가 철도망 형성을 계기로 국제 사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페스트의 광범위한 유행을 다루고 있다. 즉, 모피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타르바간의 남획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제Ⅱ부 「모든 길은 縣城으로」의 제5장 ‘縣城경제(安富 步)’는 근대 만주지역의 시장 구조의 특질을 분석해서 오래전 스키너가 제시했던 중국 전통사회의 정시기론의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만주지역은 광범위한 역마차 보급에 따른 겨울철 운송비의 하락, 대두 유통의 계절성으로 縣城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 특유의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장작림·장학량 정권을 비롯한 1930년대 만주국의 성립도 결국 이러한 縣城경제를 기반으로 했다는 대담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 ‘縣流通券(安富 步)’은 縣城경제의 실태를 통화문제, 특히 만주사변 이후 각 현이 발행한 ‘縣流通券’에 주목하고 있다. 제7장 ‘廟에 모여드는 神과 사람들(安富 步·深尾葉子)’은 만주에서 廟會의 개최가 어떠한 시공간적 분포를 보였는가 또는 당시의 娘娘廟會에 주목해서 縣城 경제를 전제로 하는 만주지역에서 廟會의 시장기능은 스키너 제시한 전통 중국의 농촌시장 모델과는 달리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제Ⅲ부 「새로운 권력구조의 창출」의 제8장은 ‘국제상품, 만주의 大豆(安富 步)’는 만주산 대두의 화중, 화남, 일본, 유럽지역으로의 수이출 무역사와 대두무역의 세계적인 추이를 개관하는 한편, 대두의 국제 상품화가 근대 만주사회 성립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제9장 ‘營口(松重充浩)’는 1918년 營口 소재의 유력 상회였던 西義順의 경영파탄에 주목해서 過爐銀에 입각한 금융시스템의 파탄과 장작림 정권에 의한 역내 통화 통합의 급진전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補論에서는 근대 만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제10장, ‘奉天(上田貴子)’은 봉천의 지역경제 동향을 재계의 지도자층 변천과 관련해서 추적·분석하였다. 봉천지역의 유력 지도자층은 전통적인 상인으로부터 근대적인 상공업자로 변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장작림 정권의 경제적 지배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것이다.

제Ⅳ부 「비교의 시점」의 제11장 ‘山東의 小農경제’(深尾葉子)는 만주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시장 네트워크가 존속했던 산둥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질에 주목하고 있다. 제12장 ‘스키너 정기시론의 재검토’는 <그림 2>와 같이 만주지역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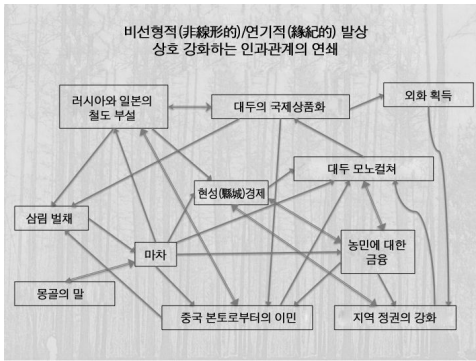


<그림 2>

로 하는 縣城경제에 기초해서 종래 스키너가 제시한 定期市論의 적용 가능성과 그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제13장 ‘중국 농촌사회론의 재검토(安富步·深尾葉子)’는 ‘공동체’와 ‘시장’과의 관련으로부터 중국 농촌사회론을 재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 ‘삼림의 소진과 근대 공간의 형성(安富步)’에서는 이 책의 전체적인 논점을 정리하고 있다.

3.

이상, 이 책은 만주에서 근대사회의 성립이 그 풍부한 산림과 자연의 희생·소진 과정이었음에 주목해서 그 역사를 생태계의 파괴 과정 혹은 동아시아 차원에서 발생한 공공재의 비극을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 관심은 근대 사회에 대한 문명사적 비판이라고도 하겠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서 성립한 근대 만주사회를 ‘縣城경제’라는 하나의 집권적인 경제네트워크로 파악해서 그로부터 정치경제와 사회구조의 실상 그리고 스키너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책은 <그림 3>과 같이 철도와 마차운송 시스템, 타르바칸의 포획, 대두의 국제 상품화를 매개로 하는 근대 만주 사회의 특질을 유기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



〈그림 3〉

여기서 ‘縣城경제’의 개념은 스키너가 중국의 농촌 사회론에서 제기한 화북지역의 정기시 모델과 대치하는 가설이며, 편지들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즉, 서로 다른 연구 대상과 학풍의 편지들도 나름의 시각으로부터

‘縣城경제’ 모델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해서 縣城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유통망의 존재를 다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마차운송망, 묘회, 縣流通券 등의 고찰은 그 자체로도 무척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이 책은 구체적인 모델로서 제시함으로써 전체적인 논지의 선명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책은 ‘縣城경제’의 논의는 정치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縣城경제’의 이론 틀은 각 현을 하나의 정치 단위로 간주해서 장작림과 장학량정권 및 만주국은 이들 각 현을 장악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적 관심은 제3부(새로운 권력구조의 창출)에서 금융계와 상공업계의 동향으로부터 근대 만주의 성립과 새로운 권력구조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 점은 장작림과 장학량정권 그리고 만주국사 연구와 관련하여 만주사회 그 자체에 내재하는 정치와 경제의 연쇄구조에 주목한 중요한 논점이라 하겠다.

나아가, 이 책은 다른 지역과의 비교 시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스키너가 제기한 사천성 주변의 농촌시장 모델을 만주 지역과 비교해서 근대 만주사회의 특질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따라서 ‘縣城경제’의 개념은 바로 이러한 지역간 비교 시점의 도입과 그 성과라 하겠다. 이러한 독창적인 연구방법의 도입이야말로 ‘왜 만주인가’라는 만주 연구자 일반의 문제의식을 효과적으

로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4.

한편, 安富교수는 2011년 8월 26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개최한 국제학술회의(학술회의 주제는 ‘근대화 프로젝트: 자본주의의 길, 사회주의의 길’) 제3섹션(만주국의 기억과 현재)에 참가해서 ‘만주의 성립: 근대 공간 형성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시도’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발표는 이 책의 전체적인 요지를 소개하는 한편, 이른바 ‘社會生態史學’이라는 독창적인 연구방법론을 제기하였다. 나아가, 발표의 마지막에서는 사회생태사적 연구방법으로부터 한국근대사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구체적인 연구 주제 그리고 방향까지도 제시하였다. 그 요지를 최대한 살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두산의 삼림 파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다. 현재의 백두산은 거의 원형을 상상하기 힘들만큼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이러한 삼림 훼손은 중국과 북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정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현재 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파괴 과정에 대한 사회생태사적 해명은 그 회복을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수풍댐의 건설과 생태계 파괴에 관한 역사적 연구이다. 조선총독부와 만주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1941년 말 수풍댐 건설은 압록강의 강류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지역 생태계에 상상을 초월하는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수풍댐을 개방해서 어족류 등 생물의 이동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압록강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백두산 회복의 불가결한 조건이라 하겠다. 그 첫 걸음으로 1937년 이후 본격화한 수풍댐 건설이 초래한 압록강과 백두산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불가결하다.

셋째, 조선 후기 정기시 연구이다. 조선은 일본 혹은 만주와 같이 정기시가 희박한 지역과는 달리 조밀하게 분포한 정기시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였

다. 즉,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은 일본과 같이 정시기의 소멸이 아닌 정반대의 확대로 귀결되었다. 더구나, 만주에서는 향촌의 정기시를 결여한 대신에 현성과 철도역 중심으로 유통기능이 집중하는 경향이였다. 이는 만주지역의 사회구조와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조선 후기 정기시의 존재는 조선의 사회경제사와 깊은 관련을 시사한다.

넷째, 조선 후기의 위약한 화폐경제와 강고한 정기시의 보완성 문제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제, 권력, 화폐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생태사학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논점이다. 실제로, 조선에서 정기시가 현저했던 것과 도시의 미발달은 상호보완 관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금속화폐의 미발달과도 상호보완 관계를 시사한다. 즉, 직접 상대거래의 연쇄구조가 전국적인 시장망과 연계되지 않았다면, 전국을 통일적 화폐망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고 활발한 상대거래를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성에 대응하는 화폐 사용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생태사적 시점에서 조선 후기의 미성숙한 화폐경제와 강고한 정기시 경제와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선인의 만주 이민과 만주에서 벼농사 형성과의 관계이다. 일본의 이민정책으로 벼농사 기술을 갖는 다수의 조선인이 만주지역에 입식하였다. 종래 만주농업은 삼림 축적한 유기물을 소진하는 농업 방식이 주류였던 반면, 수전농업은 생태계와 공존하는 농업 방식이다. 현재,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수전농업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만주지역에서 수전농업의 확산과 그 중심에 있었던 조선인에 대한 역사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조선인 이민자의 생활과 생태계와의 상호관계사 연구는 만주의 사회생태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논점이다.

이상, 安富교수가 제기한 5가지 주제는 그 동안 한국학계에서도 상당한 연구축적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安富교수의 제안은 사회생태사라는 독창적인 연구 방법과 국제 비교시점의 도입이라는 보다 새로운 차원에서의 근현대 한국사 혹은 근대 동아시아사 연구의 제안이라 하겠다.

5.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제기한 논점과 관련한 몇 가지 의문이다. 먼저, 이 책의 타이틀과 관련한 만주라는 용어 사용과 개념 설정의 문제이다. 이 책명은 ‘근대 만주의 성립’이 아니라 단지 ‘만주의 성립’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만주라는 용어가 지역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시스템 그 자체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만주를 단순한 지역으로 파악한다면, 이 책에서 만주라는 용어 사용의 함의는 그 충분조건으로 근대성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근대 이전의 만주에 대해서는 근대성의 부정으로 이어지면서 만주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음은 이 책의 주제인 ‘만주의 성립’ 이전의 만주지역에 존재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구조 혹은 시스템의 유무와 파악 방법과의 관련이다. 이 책은 만주에서 철도 시설을 포함한 제 요인과의 상호 관련성을 갖는 근대 만주의 사회경제시스템의 존재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총체적인 해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대 이전의 만주의 시장과 사회구조에 대한 검토는 이 책의 목적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근대 만주의 사회경제시스템을 20세기 초반 이후에 성립한 역사적 존재로 파악한다는 입장과 앞서 제4부에서 논의한 산동성의 사회구조가 근대에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淸代의 유산을 적극 계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이 근대 이전 만주사회의 전통적인 요인과 시스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언급을 자제했다는 점이 아쉽다.

근대 이전 만주의 사회경제와 관련해서 최근 荒武達朗의 저작 ‘근대 만주의 開發과 移民’(汲古書院, 2008)은 청대 이후 남만주에서는 청조의 封禁정책이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았고, 그래서 산둥이민자가 산동지역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주로까지 확대·이식했다는 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반면, 이 책은 산동과 만주의 시장시스템과 사회구조의 차이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청대에 만주와 산둥은 동일한 유형의 사회구조였으나, 근대 만주 사회의 성립 이후 산둥형과 만주형으로 분화되었다는 가설, (2)근대 만주의 사회시스템은 원시적이고 맹아적인 형태였지만, 청대 이래 이미 존재했지만, 20세기 초반 이후 확대·발전했다는 가설, (3)청대 이래 산둥형과 만주형이 제 각기 병존하다가 20세기 초반 들어 상호 관련성을 갖게 되었다는 가설 등이다. 이들 복수의 가설과 그 검증 여부에 따라 근대 ‘만주의 성립’에 대한 역사적인 함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는 근대 만주 형성에 대한 역사적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이며, 금후 연구의 주요 논점이라고도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금후 근대 만주 연구의 확대·심화와 중국 동북지역사의 장기 변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연구서라고도 하겠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공동연구의 모범 사례라 하겠다. 실제로, 공동연구와 관련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학계 현실을 고려하면, 이 책은 참가 필진의 서로 다른 학풍과 전공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즉, 연구책임자가 제기하는 명확한 과제 설정과 적절한 방법론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이 연구 참가자의 학술 역량을 극대화시킴으로서 학계 일반이 납득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